



3면

폭설 응급복구 위해 특교세 50억 지원 요청

전주매일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음 12월 4일) 제31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도, 전북경제 도약
민생안정 동력 확보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 조봉업 행정부지사, 도내 국회의원들이 2023년 국가예산 9조원 돌파 및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 9조1595억원으로 전년보다 2227억원 증액 신규사업 427건 반영... 기업유치·인재양성 예산도 확충

을 다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복지·환경에 4조1,941억원, 농생명에 1조5,379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2,395억원, 새만금사업 1조874억원, 산업·경제 8,465억원, 문화·체육·관광 2,541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총 427건에 4,618억원이 반영됐으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9억3,000만원, △군산항 제2 준설도 투기장 건설에 45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38억원,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사업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25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01단계 조성 13억원,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3억원 등이 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업유치 및 인재양성 기반 조성 예산도 확충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 조성 138억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50억원,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4억원, △캠퍼스 혁신과

크 조성 90억5,000만원,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31억3,000만원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의 재정구조 변화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재구조화 등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예산규모의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사업, 탄소·수소·소재부품·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모빌리티·조선·기계·농생명 등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내실 있

는 예산을 대거 확보해 전북도의 경제체질 강화와 성장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전북도는 국가예산이 9조원을 돌파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정치권과 시민, 도는 오직 도민과 전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뛰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전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창업·신설 기업에 최초 3년간 100% 법인·소득세 감면

새만금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신설·창업기업에도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지역이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창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2020년에 각각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사위(2020년 새만금사업법)와

기재위(2021년, 조세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두 법안이 병행처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 넘게 표류해 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두 법안이 통과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오자 2022년 내 두 법안 동시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사위·기재위 양당 간사 등 정치권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김중훈 경제부지사,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도 지휘부가 국회에 상주하며 기재부 위원 설득에 사력을 다했다.

다. 또한 전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협력관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기민하게 협력·대응했다.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도 힘을 모았다. 황영석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 계류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

기재위 간사이자 전북 연고 의원인 신동근 의원은 양 당간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기재위 조세소위에 포진한 한병도·홍영표·양경숙·진선미·유동수 의원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힘썼다. /김재훈 기자

전주 불교 세계평화 명상센터 문 열었다

천년고찰 서고사 경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서고사(주지 화평스님)와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우스님) 주관으로 전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이하 명상센터)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금산사 도영 큰스님을 비롯해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불교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방산 서고사 경내에 건립된 명상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총 100여명이 투입돼 명상생활체험관, 교육복합관, 목조명상체험관을 갖춘 종교문화 체험시설이다. 그간 전북도는 전주시, 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명상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명상센터는 황방산의 고즈넉한 자연을 배경 삼아 명상 체험과 토론회, 세미나뿐만 아니라 문화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명상센터가 위치한 서고사는 후백제 경원이 완산주(지금의 전주시)에 도읍을 정한 뒤 국운 회복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창간한 고찰로 도심과 가까운 황방산에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명소다.

여기에 명상센터까지 건립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상체험을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전북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발전도 기대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불교세계명상센터가 준공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명상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전북의 종교문화자원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을 즐기다

금강첫물

뜨거운 봄샘 생태관광지

NAVER 장수군 검색 DdM 장수군